

“기업, 부채 늘려 사업 확장할 때 아냐... 현찰 확보하라”

도전과나눔 ‘기업가정신 포럼’
권평오 전 코트라 사장 강연서
글로벌 경제 ‘퍼펙트 스톰’ 경고
미·중 무역분쟁, 공급망 재편 등
국내무역·경제 큰 영향 미칠 것



권평오 한국해양대 석좌교수가 15일 도전과나눔 주최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도전과나눔

“기업들은 지금 금융부채를 늘리면 서 사업을 확장할 때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현찰을 확보해둬야 한다. 이는 분명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15일 서울 역삼동 GS타워 1층에 있는 아모리스홀. 아침 7시 이른 시간인데도 주최측이 마련한 300석 가까운 자리 대부분이 찼다.

(사)도전과나눔이 매달 셋째주마다 열고 있는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코트라(KOTRA) 사장을 역임한 권평오 한국해양대 석좌교수가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의 위협요인’에 대해 강연을 하면서 청중들에게 무겁게 던진 말이다.

300석 가까운 자리엔 100여 명의 스타트업 대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벤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을 거쳐 주사우디 아라비아대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지금의 세계 경제가 ‘퍼펙트 스톰’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권 교수는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당시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다.

그러면서 ▲역대급 인플레이션 ▲미국발 긴축정책 확산 ▲달러 강세(원화 약세) → 고통환율 확산 ▲세계경제·무역 침체 ▲중국경제 부진, 코로나19 봉쇄를 퍼펙트 스톰 위협을 예상케하는 5가지 요인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인플레이션’이다. 그것도 전례없이 높은 수준의 물가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다.

권 교수는 “에너지, 식량, 원자재 등 모든 가격이 크게 올랐다. 코스트 푸시(cost-push·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이기는게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적이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국외로의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대표적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 다음이다. 금리·물가 상승 → 가처분소득 감소 → 소비 위축 → 경제성장률 하락 → 수출 감소 등 거시경제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더욱 걱정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경기를 살리겠다고 단행했던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서 쓰는 것은 더욱 적절치 않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권 교수는 “퍼펙트 스톰 위협 뿐만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기술 분쟁 심화,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지속, 탄소국경세 도입 확산 등 기후변화 이슈, 디지털 전환에 의한 국가간 수출경쟁력 변화 등이 우리나라 무역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중국 진출 방식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권 교수는 “첨단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에 열린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은 필수다. 앞으로의 공급망 위기는 기업들에게 상시적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런 모든 변수들이 비즈니스에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에는 철저히 대응하되 기회는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왼쪽부터) 이병훈 에스피에스엔에이 대표, 이준호 SK텔레콤 부사장,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이태영 KC그린홀딩스 회장이 협약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스피에스엔에이

에스피에스엔에이, 한국남부발전, SKT, KC그린홀딩스 다회용컵 사용문화 확산 앞장선다

순환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삼표그룹 계열인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에스피에스엔에이(SP S&A)가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에스피에스엔에이는 한국남부발전, SK텔레콤, KC그린홀딩스와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구축 사업은 카페에서 고객이 음료를 주문하면서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 컵을 이용한 후 무인 반납기를 통해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반납된 컵은 전문 세척업체를 통해 세척·살균·소독 등의 과정을 거쳐 카페에 다시 공급한다.

협약에 따라 에스피에스엔에이는 본사 건물 내 카페 등에 다회용 컵 무인 반납기를 설치하고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삼표그룹 계열사 임직원들도 다회용 컵 사용 문화 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 일회용 컵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다회용 컵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병훈 에스피에스엔에이 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스피에스엔에이는 산업부산물 재활용을 통해 탄소 저감형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 2020년에는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국내 최초의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전문법인 코스처를 설립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중소벤처기업 ESG 역량강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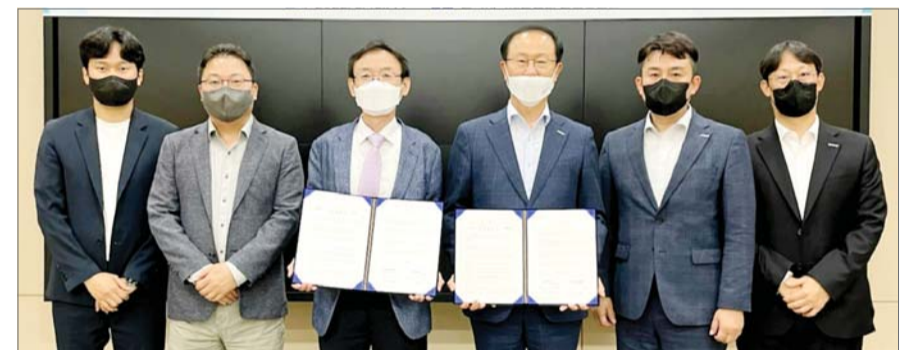
특허전략개발원과 손잡고
자금·마케팅·컨설팅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손잡고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본관에서 특허전략개발원과 유망 중소벤처기업 성장 촉진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진공 서울북부지부에서 서울시 4대 미래성장산업(디지털문화콘텐츠, 바이오, 패션·스마트섬유, 지능형ICT) 집중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혁신성장 level-up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뤄졌다.

두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중소벤처기



(왼쪽부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박기연 그룹장, 배중호 팀장, 한상규 특허사업확산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영환 기업지원본부장, 이용수 서울북부지부장, 허진석 서울북부지부 팀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업 통합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 미래성장성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 경영역량(ESG) 강화 및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중진공은 지역유망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정책자금·마케팅·연수·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특허전략개발원은 중소벤처기업 기술 성장을 위한 기술이전,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IP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LX판토스, 항공물류 서비스 경쟁력 뽐내

MAT2022서 원스톱 항공물류 선배

LX판토스가 오는 17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물류산업 전시회인 ‘2022 국제물류산업대전(KOREA MAT 2022)’에 참가해 항공물류 서비스 경쟁력을 뽐내고 있다.

15일 LX판토스에 따르면 회사는 이

번 전시회에서 전 세계 360여개 물류네트워크 기반의 차별화된 ‘글로벌 원스톱 항공물류 서비스’를 선보였다.

LX판토스는 108㎡ 면적, 12개 부스 공간에 항공기 기체를 컨셉으로 한 디자인을 적용해 마치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항공기의 내·외부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꾸몄다.

이 공간에서 LX판토스는 국내 항공

수출 취급 물동량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합리적 운임과 연중 안정적인 화물 선복을 제공하는 항공화물 운송비즈니스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주로 완제품과 부품 등 항공화물 탑재용 규격 용기에 담겨 취급되는 일반 항공화물 운송 뿐만 아니라 특수화물(Special Cargo)에 대한 LX판토스만의 차별화된 운송 역량 및 취급 노하우까지 만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일 잘하는 공무원’ 교육에 내년부터 AI·빅데이터 도입
- ▲ ‘반도체 인재양성’ 범부처 대책 내달 나온다... 특별팀 가동 /사진 뉴스스

- ▲ 대검 “장애인 대상 범피엄정대응...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 ▲ 코로나19로 노인학대 증가... 최다가 해자는 아들에서 이제 배우자



- ▲ 내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인증... 서비스·근로조건 향상 /사진 뉴스스
- ▲ “서울광장 성소수자만 허가, 차별 행정” vs “국민 가치관 격돌... 거부 촉구”